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과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이제 곧 봄이 온다. 봄이 온다는 것은 추운 겨울에 발생하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촌 기후가 변화한 것인지, 바이러스가 보다 강성하게 변화한 것인지 아시아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AI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지역을 빠르게 전염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검역체계가 미약한 아프리카, 중동, 인도에서의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사실상 더 많은 감염자 발생과 인명피해를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국제가격 또한 크게 변동하고 있다. 1월초와 2월말을 대략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25% 정도 급락했다. 전세계 소비감소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러한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2월 AI 발생으로 70%의 소비감소세를 보인 것도 이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의 공통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으나, 서로간의 깊은 앙금이

남아있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단지 다 함께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유했으면 한다.

미국

3월 선적분의 경우 사각(Leg Quarters)은 톤당 500불,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톤당 800불대를 보이고 있다. 1달전의 가격과 비교하면 20% 정도 급락한 가격이며, AI가 꾸준히 발생할 경우 약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파악된다.

AI 발생현황을 보면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발생했다. 미국과 브라질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 또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고 만일 그러하다면 한국시장의 수급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3월달 선적가격은 2002년도의 가격을 연상시킬 만큼 바닥을 암시하고 있다.

덴마크

계절철새인 야생백조를 통해 유럽의 AI가 전파되고 있는데, 덴마크 영토에서 몇 마리의 야생

백조가 죽은 채로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덴마크의 최대 가공품회사인 ROSE사와 덴마크 정부는 AI와는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업체들은 검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품질의 개별 급속냉동(I.Q.F)의 장각(Regular Whole Legs)과 날개(Wings)가 꾸준히 교역되고 있다. 날개(Wings)의 경우 2/4분기까지 계약되었으며, 장각(Legs)의 경우 1,300불에 거래되고 있다. 3월에 개최되는 Seoul Food Show에 부스를 설치해 고품질 닭고기 홍보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중국

자숙된(Steadied) 꼬치상품에서 데리야끼 꼬치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자숙된 꼬치는 성공적으로 한국시장에 정착되었고, 올해부터는 맛이 첨가된 데리야끼 꼬치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산 가금육의 가격급락으로 중국산 가공품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톤당 3,000불대의 가격보다 저가의 미국산 닭고기를 발굴해서 판매하는 것이 보다 경쟁적이라는 것이 무역업체의 반응이다.

브라질

1/4분기의 날개(Wings)의 경우 이미 계약이 모두 되어있고,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 꾸준한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한국시장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대략 2,200~2,400불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800불대를 형성하고 있다.

3월 시장의 경우 보다 약보합세로 움직일 것 같다. 매스컴을 통한 AI발생소식은 한국뿐만이 아닌 지구촌 전체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 공장을 갖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신속하게 감산을 하고 냉동 창고를 무한대로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

모두가 예측하듯이 3월 이후부터는 ‘급변’, ‘급락’, ‘급등’이라는 단어가 쉽게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개학과 더불어 학교급식과 다양한 케터링 소비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 보이겠지만, 역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7개 국가에 부지부식간에 AI가 발생되었고, 닭고기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아프리카에서조차 발생했다. 철새 이동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럽과 유라시아의 AI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한 국제간의 검역장벽이 생겨 한국으로 수입되는 국제가격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육류 무역은 잼블링이다”라고 회자되기도 한다. 1차 생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표현을 한단다.

작년 업계의 대부분이 좁은 시장에서 잼블링을 즐기면서 크게 혼이 났고 그 영향은 지금도 미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디 한국시장의 규모를 이해하고 경영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